



▲ 지난 3월 3일 산청지부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부인들,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지부 창립 22주년 기념 및 전국 최우수지부 수상 자축연이 개최되었다.

## 2003년 최우수지부

# 지역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양돈인 위상 제고하는 경남 산청지부

취재 : 정재은

지난 2월 19일 개최된 본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경남 산청지부가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었다. 이어 3월 3일 산청지부 사무실에서는 산청지부 창립 22주년 기념 및 최우수지부 수상 자축연이 개최되었다.

산청지부는 양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2003년도에 회비, 임의자조금을 완납함으로써 양돈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였으며, 산청지역 양돈인들을 회원으로 유도하여 협회 중심으로 단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TV홍보비,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3차례에 걸친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양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밖에 월례회의와 함께 각종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산청군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경남 산청지부(김광규 지부장, 55세)는 지역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산청군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이유자 돈사 설치, 환풍기 설치, 기자재 판매를 통해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농장소독기 설치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종돈구입사업을 통한 품질개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톱밥 및 미생물 지원으로 환경 개선 및 분뇨처리에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약재인 두충을 사료로 이용하고 산청 경호강의 1급수 물을 먹여 천왕이포크라는 안전한 기능성 브랜드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산청지부는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관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협의회 및 지역축산단체협의회와 정기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 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산청지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돈가의 불균형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1980년 4월에 양돈경영 안정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때 위원장이었던 민영만씨가 협회 지부창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3년 1월에 산청지부를 설립하였다. 초대 지부장 민영만씨가 3대까지 지부장을 역임하고, 4, 5대 진용길 지부장, 6대 배영정 지부장에 이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김광규씨가 7, 8대



▲ 경남 산청지부 김광규 지부장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봉사 정신 아래 회원들이 양돈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산청지역에서 50두 이상 사육농가 35개 양돈농가가 5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29농가가 산청지부 회원으로 3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들 평균 사육두수는 1,000~2,000두이고, 전업규모 양돈농가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의 절반 정도는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더 많은 양돈인들을 회원으로 유도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원은 김광규 지부장, 이용호·조태영 부지부장, 민영만·주정규 감사, 민병관 총무, 민영이·안윤섭·오재훈·김민환 운영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및 부인들과 오상욱 간사가 협동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 활발히 전개

산청지부는 지역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산



▲ 산청지부 임원 및 회원과 부인들, 간사가 모두 협동하여 지역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좌측부터 산청지부 조태영 부지부장, 이용호 부지부장, 김광규 지부장, 민병관 총무

청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시설을 보완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조기이유자돈사 설치, 환풍기 설치, 기자재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조기이유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산청군 50%의 보조로 작년 10농가에 조기이유자돈사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3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군 50% 보조와 함께 작년 20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설치를 하여 철저한 환기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올해는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60여 농가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온등, 니플 등의 기자재를 공동 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년 17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전 축종 65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출입구무인소독

기 설치를 하여 질병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종돈구입 사업을 통해 품질개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작년 23농가 500두에 이어 올해는 1,000두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 역시 군 50%의 보조를 받고 있다.

한편 군 50% 보조와 함께 작년 20농가에 미생물(생균제)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올해는 전 축종으로 확대해 60여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뇨처리를 위해서 작년 23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지원을 하였으며, 점차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액비탱크 설치 및 액비 이동차량 구입을 하고 액비유통센터, 공공처리장, 유기질비료 퇴비공장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회원들이 분뇨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안전한 기능성 브랜드돈육 생산을 위한 노력

산청지부는 안전한 고품질 기능성 돈육을



▲ 우측부터 산청지부 민영만 초대지부장(현 감사), 조태영 부지부장, 김광규 지부장, 오상욱 간사, 이용호 부지부장, 민병관 총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산청지역에 산재한 한약재 두충을 사료로 이용하고 경호강의 1급수의 물을 먹여 사육한 돼지고기 천왕이포크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두충잎 원료에 대해서 군 50%의 보조를 받고 있다. 지난 해 6농가로 시작하여 8월 8일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 유도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안전한 기능성 돈육 생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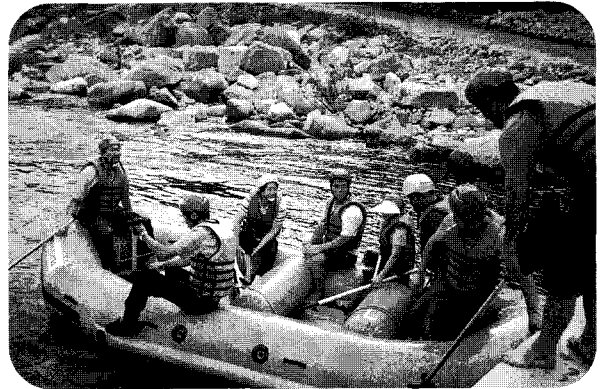
김광규 지부장은 “천왕이포크는 1등급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충을 이용함으로써 두충 재배농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천왕이포크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 무료시식회, 불우이웃 돕기, 세미나, 단합대회 등의 행사 추진

산청지부는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양돈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한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 때 산청 공설운동장에서, 7월 산청축협 앞에서, 11월 20일 산청군 구내식당에서 3차례에 걸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돼지고기의 양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천왕이포크, 산청흑돼지의 경우 맛이 좋아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모금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별도로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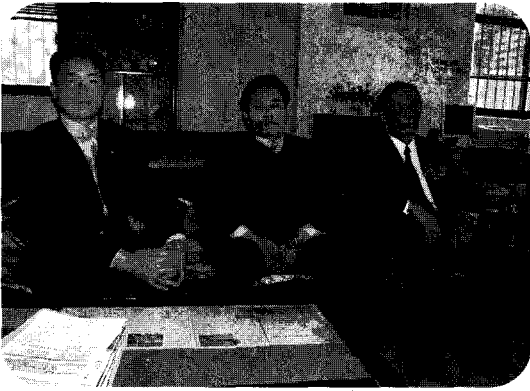
▲ 산청지부는 지난 해 3차례에 걸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돼지고기의 양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천왕이포크, 산청흑돼지의 경우 맛이 좋아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 산청지부는 경남도협의회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하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래프팅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설과 추석 때 2번에 걸쳐 수출부위 300kg 정도를 산청군청 사회복지과에 기증함으로써 관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고 있다.

산청지부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환경, 사양 및 질병관리 등의 세미나를 통해 최신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매년 1, 2명의 회원들이 진주산업대학교 양돈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산청지부는 회원들의 돼지 사육규모에 따라 월



▲ 산청지부에서는 회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측부터 산청지부 민영만 감사, 김광규 지부장, 민병관 총무

3~8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 회비 및 임의자조금과 TV홍보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미리 배정해 놓고 납부함으로써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산청지부에서는 회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단합대회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7월에는 가족야유회의 시간을 가졌고, 12월 연말에는 부부동반 송년회가 있었다.

## 산청지역 축산인 및 경상남도 양돈인과의 교류 활발

산청지부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은 양돈, 한우, 낙농, 양계, 양육, 흑염소, 양봉, 육견, 지역 축협, 수의사회, 수정사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인 지역축산단체협의회(2001년 3월 설립, 회장 김광규)를 통해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산청군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지역 양돈인 뿐만 아니라 축산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산청지역 축산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축협과 지역축산단체협의회가 매년 봄에 번갈아 가면서 산청군 축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4월 26일 산청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3월 27일에 4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산청지부는 경남도협의회(회장 이용모)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하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래프팅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9월에는 서부경남지역 거창·진주·함양·함천지부와 함께 5개 시·군 양돈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02년 5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고속도로 통제이트 3군데에서 축협, 행정기관(산청군)과 지역축산단체협의회가 교대로 차단 방역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김광규 지부장은 2002년 12월말에 김동태 농림부장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 회원들 일심동체로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으로 이끌어야

김광규 지부장은 “현재 돈가가 좋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회원들은 일심동체로 단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양돈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사업과 정책 및 체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자조금 사업을 통해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불균형의 소비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질병차단으로 청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양돈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돈**